

2008 년 촛불문화제 리포트

전 철 (신학동네 <http://theology.kr>)

2008 년 11 월 8 일

차 례

차 례	1
1 촛불문화제 등장 배경	1
2 2008 년 5 월 말의 촛불문화제 상황	1
3 2008 년 6 월 5 일 촛불문화제 상황	2
4 2008 년 6 월 6-7 일 촛불문화제 상황	3
5 2008 년 6 월 8-9 일	3
6 2008 년 6 월 10 일 백만인 궐기 촛불문화제	4
7 2008 년 6 월 11 일	6
8 2008 년 6 월 12 일	7
9 2008 년 7 월 5 일 토요일	9
10 2008 년 7 월 12 일 토요일	9
11 2008 년 7 월 19 일 토요일	9
12 2008 년 7 월 26 일 토요일	10
13 2008 년 8 월 2 일 토요일	10
14 2008 년 8 월 5 일 화요일 부시 방한일	10
15 2008 년 9 월 29 일 월요일	11
16 2008 년 11 월 8 일 토요일	11

1 촛불문화제 등장 배경

2008 년 6 월 현재 진행되는 촛불시위는 2008 년 2 월 25 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명박과 그 정권의 정책에 대한 쌓여진 반감과 저항을 그 핵심으로 한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야기한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에 대한 대한 국민의 건강권 수호의

저항을 촛불시위는 그 기조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켜야 하는 과제를 지닌 국가의 정책이 공적 과제를 망각하고 공적 인프라의 사유화-기업화 정책¹⁾을 이명박 정권의 모토로 삼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권을 뿌리로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박 5일의 일정으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방미 하여, 4월 19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이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하여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가 어떠한 검토도 없이 급속하게 처리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 정권에 의해 구상되었던 한미 FTA 문제의 신속한 실시의 목적 하에 쇠고기 협상에 관련한 미국 측의 입장을 한국인의 건강권에 대한 주권의식 없이 수용한 것이며, 이에 대한 한 국민적 저항은 촛불시위로 드러나게 된다.

2 2008년 5월 말의 촛불문화제 상황

꾸준히 진행되었던 촛불시위는 5월 말부터 더욱 더 대중적인 기조 위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진행이 된다. 종교계에서도 시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5월 30일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은 생명과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다.²⁾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력으로 이루어지는 촛불문화제가 단순한 일회성 모임을 넘어서 범 대중적 참여 속에서 국가에 대한 국민적 저항권으로 창발하게 된 시점을 2008년 5월 말이라고 보면 정확할 듯 하다. 특히 5월 25일 전주에서 진행된 미 쇠고기 반대 집회에서는 시민 이병렬님이 분신을 하게 된다.³⁾

더 나아가 5월 31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진행되었던 촛불시위에서는 공권력의 불법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시민을 다름으로 수많은 네티즌과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킨다. 6월 1일 새벽 6시 30분경,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문화제 후 서울 효자동 일대에서 밤새 대치 중이던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공권력은 물대포를 동원하게 된다. 이 물대포로 인해 눈에 상처를 입은 김영권 씨는 그 자리에서 119 응급차에 의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송된다.⁴⁾

현장상황은 직접 디지털카메라 혹은 핸드폰동영상 및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인터넷에 보도가 되기에 6월 1일 새벽의 공권력의 시민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 상황은 여과 없이 많은 네티즌과 관심을 지닌 국민에게 전달되었다. 이러한 공권력의 폭력적 상황에 대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도 정부의 과잉 폭력진압에 대한 성명서를 6월 5일 발표한다.⁵⁾

1) 이명박 정권의 기조는 실용주의로 표방되고 있었다. 그러나 취임 후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위한 실용주의라고 하기 보다는 소수자의 특권계층의 이익 분배의 방식으로 국가의 방향 및 인프라를 재구성하려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된다.

2) Cf.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의 성명서 (2008년 5월 30일)

3) 이병렬 님은 2008년 6월 9일 오전 11시35분경 사망하게 된다.

4) Cf. 물대포 직접 맞은 30대 시민 '반실명 상태', 오마이뉴스 (2008년 6월 1일)

5) Cf. 정부의 과잉 폭력진압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성명서 (2008년 6월 5일)

3 2008년 6월 5일 촛불문화제 상황

6월 6일 공휴일인 현충일을 앞둔 5일은 오후 7시부터 29번째 촛불문화제와 동시에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이 시작된다. 동시에 시청에서는 6월 5일 오후부터 북파공작원 출신 그룹의 추모행사가 강행되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소위 3일간의 국민 MT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이 촛불문화제에서는 첫째날인 5일에는 7만명, 6일 토요일에는 20만명, 일요일에는 12만명의 시민이 모여 도심 거리행진 및 쇠고기 재협상,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외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 그리고 진보신당 등등에서 이 3일간의 촛불문화제의 영상을 인터넷 TV로 실시간 전송한다는 점이다. 즉 물리적으로는 서울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 시민들이 촛불문화제를 참여하였지만, 동시적으로 그 생생한 정보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많은 인터넷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 제공된다는 점이다.

촛불문화제는 시청을 중심으로 문화공연 및 자유로운 의견발표를 바탕으로 이후 남대문과 종로 및 광화문 쪽으로 도심 거리행진을 시도하고 마지막으로는 광화문에 도달하게 된다. 경찰은 경복궁과 청와대 쪽으로 가는 입구를 철통같이 막고 광화문의 도로 한가운데 또한 전경버스를 동원하여 막는다. 이는 청와대에 가려는 시민들을 막기 위한 경찰과 공권력의 불법적이고 물리적인 제어 수단이며 또한 시민과 전경이 대치된 그곳에서 주로 새벽 시간에 많은 물리적 갈등이 일어나곤 하였다.

특히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뒷골목에서는 시민과 전경의 대치상태가 몇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 지형적인 한계로 인해 전경이 물리력을 강하게 동원하면 많은 시민들이 부상당할 수도 있었을 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6월 1일 새벽 공권력의 시민에 대한 물리적 폭력의 여론이 좋지 않음을 인지한 듯한 경찰은 최소한의 수동적인 방어만을 하게 되어 물리적 충돌은 특별히 일어나지 않았다. 특히 시민 및 전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예비군 시민들은 그날 새벽까지의 대치를 마감하도록 전경과 시민 사이에 진입하고 해산을 중용하였다.

동이 거의 뜬 6일 새벽 6시 정도에 수많은 전경들은 광화문 일대에 있는 시민들을 급작스럽게 토끼몰이 식으로 몰아냄으로서 광화문 교차로의 차량운행을 가능하게 한다. 그 와중에도 약 20여명의 시민은 광화문 4거리의 중앙에서 이명박 정권 퇴진을 외치며 연좌 농성을 하였다.

4 2008년 6월 6-7일 촛불문화제 상황

6월 6일은 20여만명의 많은 시민이 모인 날이다. 6일 오후 북파공작원들 모임인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오후 서울광장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폭행한다. 그로 인하여 진보신당 칼라TV의 중계진인 서울대 학생이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중

상을 입는다. 수많은 시민들의 테마는 이제 단순하고 지엽적인 쇠고기 재협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명박 OUT"을 촉구하는 시민의 요구와 분노가 더욱 더 극에 달아 올랐다.

그 이유는 긴 시간동안 시민들은 촛불문화제를 통하여 계속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으로의 노선변경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점들이 일관되게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현정권에 대한 20프로 미만의 지지율은 소통을 모르는 이명박 독주정권으로 야기된 국정파탄, 요동치는 불안한 경제상황, 극심해지는 민심의 저항에 대한 한 현상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소통의 부재에 기인하는 자극적인 언사들은 학생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한목소리로 참여하는 촛불문화제에 오히려 동력을 촉발하게 한다.

5 2008년 6월 8-9일

6월 10일, 역사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그 날 보수기독교단체인 뉴라이트 및 교회는 시청에서의 행사를 통하여 6.10 행사의 맞불을 놓으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다. 이명박 정권의 종교 사상적 뿌리는 한국의 친미 보수 기독교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대운하 정책 및 여러 정권 정책의 핵심 인사 가운데에는 교회인사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 가운데 대운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추부길은 현직 목사이다.

추부길 목사는 보수적인 기독교계 인사들이 개최한 기도회에 참석해 촛불집회 참석자들을 염두하고 "사탄의 무리들이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발언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러한 보수적인 기독교 세력의 이명박 정권 수호를 위한 연대적 모색은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감리교의 김홍도 목사는 5일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빨갱이 잡으면 촛불 쏙 들어" 간다는 발언을 하여 촛불시위의 핵심을 색깔론으로 곡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다.

이 와중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6.10'법질서 수호 및 한미FTA 비준 촉구 국민대회'와 '구국기도회'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서명서를 6월 8일 발표한다.⁶⁾

이 성명서에서 "우리 민족사 속에서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민중과 함께 고통을 같이해 온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민중과 민심을 배반하고 힘이 있는 자들과 그들 정권의 수호자로 나선 보수적인 기독교 세력을 비판하고 있다.

6) Cf. 6.10 보수단체 맞불집회에 대한 총회 성명서 (2008년 6월 9일)

또한 개신교 원로 27명이 9일 기독교회관에서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⁷⁾ 특히 대부분의 기독교 인사와 세력들이 이명박 정부를 감싸안는 태도를 지적하면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더욱 비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명박 정부를 진정으로 돕는 것"이라는 강조를 한다. 처음에는 어린 아이들의 작은 촛불로 시작되었던 소고기 협상 파동의 문제가 이제는 종교계의 비상시국선언문, 노동노조와 대학생들의 동맹휴업, 그리고 어린아이와 주부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전 국민적인 저항의 전선으로 확대 되어가고 있는 국면이다.

6 2008년 6월 10일 백만인 꺾기 촛불문화제

6월 10일은 21년 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날이기도 하다. 이날은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부상을 당한 날이기도 하다. 촛불시위와 함께 하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10일 촛불대행진은 '제2의 6월 항쟁'이며,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 등 특단의 조치를 실행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저항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많은 네티즌과 시민도 6월 10일을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시국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곡점의 의미로 헤아리고 있을 것이다. 이미 6월 9일 저녁부터 청와대 방향을 향한 광화문 도로는 기존의 전경버스를 통한 바리케이트 대신에 콘테이너 박스를 세워놓았다. 그 콘테이너 박스 안에는 수 톤에 해당하는 모래 주머니를 넣고 콘테이너 박스의 파손과 움직임을 대비하여 박스 사이를 용접해 놓고 있다.

지금의 형국은 시스템의 효율적 제어를 위해 임시 부여된 권력을 사적으로 전횡하는 대통령과, 그 권력의 원천인 국민 사이의 물리적 갈등의 양상으로 보인다. 예전과는 달리 국민은 그간 역사 속에서 내면화 하였던 고양된 민주주의적인 감각과, 개인적 지성들을 동시적으로 엮어주는 인터넷 테크놀로지를 소유하고 있다. 거기에서 대중적 지성은 창발한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물리적 갈등의 양상은 어떤 의미에서 현상적 진단에 불과한 것이며, 권력 수행자를 향한 권력 부여자의 새로운 정보 입력 요구, 왕권적 대통령의 단선적 정보와 권력지성에 대한 대중 다수들의 새로운 방식의 지성전(war of intelligence)을 본질로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전의 전경버스보다 훨씬 높은 키의 만리장성과 같은 콘테이너 박스를 보면서 만족해 할 듯한,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하는 이명박 정권의 어리석음과 자충수를 우리 대중과 국민은 어렵지 않게 직관할 수 있을 것이다.

오후에는 주최측 추산 60만의 시민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모인 대규모 집회가 시작되었다. 독일에서는 로이터 통신 독일판으로 최대인파가 모인 광화문 소식이 타

7) Cf. 기독교 원로들 '비상시국선언문' 발표, 오마이뉴스 (2008년 6월 9일)

전⁸⁾되었고, 연세대에서 출발한 이한열 열사의 영정 또한 광화문에 합류했다. 수십만의 촛불들이 모인 역사적인 문화제에는 강기갑 의원, 가수 양희은과 안치환, 그리고 연화인 문소리 등등이 참여하여 단상에서 발언과 노래를 하였다. 이미 10일 새벽부터 광화문에서 청와대 방향에 컨테이너 박스가 쌓여져 있었으며 남아있는 시민들은 박스 앞에 모여 있다.

일부 시민은 스티로폼을 쌓아 컨테이너 박스 위로 올라가려 하였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에 의해 제지당하였으며, 오랜시간 서로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새벽 5시부터는 깃발을 든 시민들만 스티로폼을 통하여 컨테이너 박스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매일 촛불문화제의 마지막 새벽에는 시민의 해산을 가하기 위한 경찰의 진압이 시작되곤 하였다. 오늘의 경우는 많이 남아 있는 시민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에 올라간 시민들로 인하여 경찰의 진압에 의해 많은 이들의 피해가 염려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 5시 10분에 경찰의 경고방송 "지금 즉시 컨테이너 박스에서 안전하게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가 시작된다

6시 17분 경 골목마다 전경들이 서대문 쪽에서 시민쪽으로 밀고 있으며 시민들은 전경들에 대치한다. 전경들은 시민들을 밀고 컨테이너 쪽으로 나왔으며 6시 22분경 교보문고 앞쪽도 전경들이 시민을 진압하기 위하여 자세를 갖추고 준비하고 있다. 이미 전경들은 컨테이너 앞 쪽으로 나왔으며 그리고 그곳에서 시민들을 진압할 태세를 하고 있다. 예비역들은 스크럼을 짜고 경찰과 대치해 있는 상황이다. 6시 32분 현재 광화문은 경찰들과 시민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경찰들이 전경대 뒤에서 카메라를 동원하여 시민들의 얼굴을 채증하고 있다.

시청 방향만 빼고 종로와 서대문 그리고 광화문 방향 모두 시민은 전경에 의해 둘러 쌓여 있는 상황이다. 비교적 지루한 대치가 아침 8시까지 지속되다가 시민 해산을 위해 전경이 시민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 작고 큰 물리적 충돌이 이루어졌고 결국 광화문 사거리의 도로는 다시 개통되었다. 어느 할머니는 옆에 있었던 시민이 끌려갔기에 자신도 같이 경찰에게 끌려가기를 원하면서 자리를 뜨지 않아서 많은 보는 젊은이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어느 나이 드신 시민은 전경방패를 뒤로 하고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신다.

결국 눈물을 다 닦고 자리를 일어난다. 어떠한 젊은 이들은 불법적으로 세워진 컨테이너가 광화문 도로에서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경찰의 불법에 대한 정의는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경찰의 힘에 밀려서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한 경찰은 광화문 사거리 도로 개시를 위해 자가용의 운전자에게 서대문 방향으로 차를 움직여도 된다는 싸인을 하여 그것을 받고 가던 중 시위를 하던 시민이 치이게 되었으며 그 시민은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되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시민과 운전자, 그리고 교통경찰 사이 큰 실랑이가 이어지다가 결국은 수습이 되었다.

8) Energie-Proteste in Südkorea - Kabinett vor Rücktritt (Dienstag, 10. Juni 2008)

진보신당 칼라 TV는 언제나 그랬듯, 새벽을 넘어 아침이 되기 까지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인터넷 TV를 통하여 신속하게 보도하였다. 여타 인터넷 TV보다 훨씬 더 바빠 현장을 뛰어다니고 또한 앵커의 설명까지 가미가 되어 어떠한 인터넷 TV 보다 더욱 더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진면모로 가까이 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진보신당 칼라 TV의 이명선 리포터는 아주 용기 있고 당당하게 위협할 수도 있는 시민과 전경이 대치된 곳, 시위대 및 경찰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에게 인터뷰를 따며 아주 생생하게 상황을 담아낸다. 동이 훤히 뜬 새벽까지 앉아 있었던 여자 고등학생들의 인터뷰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7 2008년 6월 11일

조용한 하루였다. 큰 싸움이 끝나고 쉬는 듯, 아니면 더 큰 싸움을 위해 힘을 충전하는 듯한 시기 같기도 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KBS가 정부의 방송언론 장악을 위한 다양한 압력에 대해 명시적으로 저항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로부터 방송과 언론 보호의 의미로 KBS 본관을 촛불로 감싸는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11일 새벽 조선일보 앞에는 시민들이 모아다 놓은 도시의 쓰레기 더미가 놓여져 있었다. 게다가 조선일보 신문광고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압력으로 인해 조선중앙 동아일보의 신문 광고수익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결국 시민과 국민은 잘못된 권력과 야합하는 언론과,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8 2008년 6월 12일

한국은 악천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저항이 촛불시위의 독자적인 과제로 집화되는 듯 하다. 방송언론에 친 이명박 낙하산 인사 자행을 막기 위한 촛불시위가 KBS에서 진행되었다. 동시에 1700여개 시민단체 및 인터넷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오후 7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36번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다가오는 13일은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미선·효순양 6주기 추모제가 준비되어 있으며, 토요일 14일에도 고(故) 이병렬씨 영결식 및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다. MBC 백분토론에서는 광우병과동에 관한 주제로 김종훈 FTA 통상교섭 본부장, 최재천, 강기갑 의원 등이 참여하였다. 많은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본 듯 하다.

독일은 유럽컵 축구대회로 들뜬 분위기이다. 햇살이 태양에 박혀있다가도 어느새 비가 간간히 내리기도 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진다. 오늘 독일은 크로아티아에 패배하여, 조용한 밤이 될 듯 하다. 정치가 국민을 위하여 잘 돌아가고 그 국가 인프라가 조용하지만 결국 민주적, 효율적으로 작동되면, 어쩌면 국민은 정치에 의식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상황은 정치 지도자들, 특히 이명박 정권과 대통령 자신이 국민의 공적 위탁의 과제를 망각한 채 사익과 소수 기득권을 위한 정치에 영혼이 팔려 있다. 그 결과 국민 열명 가운데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두 명도 채 되지 않는다.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이기도 하다.

이 와중에도 조선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처한 어려움의 현실을 동조하고 지지하게 하는 몇몇 기사를 작성한다. 오늘 내가 얼핏 본 기사는 작성이라고 보여지기 보다는 일종의 지적 조작으로 여겨질 만큼 속 보이고 유치한 논지의 기사이다. 실로 언론의 주요 과제는 대국민 심리전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 개개인이 보지 못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회와 국가의 국면들을 현실적으로 직시하게 하고 알리는 기능이 언론에게 있다. 공적 이익이 아니라 사적이고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곡해의 잉크를 찍어 펜을 사용하는 언론이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회 안에서의 언론의 역할을 상실한 것이며, 지적 장사치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광화문과 세종로에 거대하게 세워져 있는 왕국과 같은 조선일보의 위용을 보면 앞으로 수십년은 대한민국을 주무르면서 대한민국 밤의 제왕으로서 끈질기게 생존할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언론이 진정한 언론의 혼을 가지지 않고 생존한다면, 당장에는 그 외관이 화려하게 보인다 하여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줌의 먼지로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관성에 이미 들어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보며 세월속에서 허탈하게 사라진 성서의 고모라가 떠오른다.

인간이 자신이 생존하는 70-80년의 생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인간의 온전한 태도가 아니다. 인간의 삶과 가치가 동시대의 시선에만 머물러도 그 사회 문명의 가치가 얼마나 박약한 토양에 선 것임을 우리는 쉽게 헤아릴 수 있다. 그나마 동시대 사람들을 향한 서로간의 연대와 협력의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동시대의 이웃과의 조화로운 삶이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내 인생의 모든 의미는 충족된다는 삶의 태도는 얼마나 부조리하고 이기적인 태도인가.

청와대, 그곳은 몇십년 동안 신비롭게 대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범접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였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산다는 청와대와 그 주변의 약도를 신문에서 보면서 어디 천상의 공간이 아님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아마 시청에서도 택시로 가도 몇 분 안걸리는 아주 가까운 곳이다. 나는 그 순간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월급 잘 나오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직장터로 청와대를 생각하고 거기에 입사원서를 넣은 후 모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좋은 직장을 차지한 월급쟁이 수준의 맨탈리티를 지닌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자주 하던 말 국가와 국민의 CEO는 그저 모호하게 싸발리는 레토릭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청와대는 국민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명망과 위신과 돈벌이를 위해 한뭇 잡은 직장일 뿐이었을런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찍은 민중과 국민을 타타기도 하였으나, 한 편으로는 몇년 사이 얼마나 서민들이 세상 살기가 힘들었는가 하는 질문도 갖게 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이명박 후보의 수

준과 진면모를 아마 국민들은 투표장에서 투표할 때까지도 몰랐던 것인지도 모른다. 모든 것들이 뿌연하게 가려졌던 것들이 지금 까발려지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수준의 일침함에 놀라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몇 개월전 대통령 후보토론회에 나와서 그가 다른 후보들과 대화 하였을 때 말과 생각이 투명하지 않고 자꾸 무엇인가를 숨기고 감추는 모호한 인격의 영혼이라는 개인적 인상을 잠시 받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러나 몇 개월간의 이명박 대통령의 흐름을 보면 그는 아마 모사에 능한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사적 추측을 넘어 확신을 받게 된다. 실로 지금껏 그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원칙을 버리고 바꾼 말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국민 공약과도 같았던 재산헌납 이야기는 대통령이 되니 더 이상 언급하지도 않는다.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였기 때문에 재산헌납 이야기는 그 축에도 속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그의 그간의 변화무쌍한 행적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그가 던지는 말과 소리와 행동 속에서도, 아 저사람은 지금 혼을 다해 진심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어떠한 심미적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다.

독일도 날씨가 우중충하고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친 소나기가 출몰하기도 한다. 한국도 악천후이다. 날씨는 날씨의 문제로만 끝나야 한다. 그러나 잘못 뽑혀진 대통령 하나로 대한민국 미래 전체의 기상도도 이렇게 계속 흐려만 간다면 그것은 우리와 국민을 슬프게 하고 더욱 더 분노하게 하는 것들이리라. 이런 의미에서 촛불 시위는 인터넷 포퓰리즘이 아니라 이러한 대한민국의 절망적인 기상악화에 대한 시민과 국민들의 깨어있는 경고일 뿐이다. 대통령과 이명박 정권은 그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9 2008년 7월 5일 토요일

7월 5일은 6월 10일 토요일 백만인 궐기 촛불집회 이후로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인 날이기도 하다. 내가 한국에 7월 3일 도착하여 직접 참여한 촛불집회이기도 하다. 이번 주의 촛불집회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주도적 참여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아이들도 많이 보였고 청소년들 또한 그들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공간이기도 하였다. 수많은 집회참여 시민들은 시청에서의 행사를 마치고, 남대문과 을지로를 돌아 종로를 향해 나아갔다.

10 2008년 7월 12일 토요일

이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려 많은 이들은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이었으며, 이미 수많은 경찰들은 청계천과 시청을 차지하여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촛불집회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하였다. 나는 짙막하게 인터넷으로 상황을 접하였다.

11 2008년 7월 19일 토요일

그동안 대책위 및 촛불시위 '주동자'에 대한 경찰의 압력과 엄포, 그리고 언론의 집단적인 왜곡, 또한 촛불집회의 물리적 동력의 고갈 등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이날 많은 시민들은 모이지 못했다. 아마 비가 내리는 날씨도 한 몫 하였을 듯 하다.

시민들은 청계천광장에서 종로3가 쪽으로 나간 후에, 다시 종로에서 광화문 방향을 향하다 밤 8시 경에 경찰과 대치를 하게 되었다. 눈으로 보니 대략잡아 약 5천명의 시민들이 모인 듯 하다. 시위대의 앞에는 전대협 출신 시민들이 자리를 잡았다.

시민들은 어디선가 준비한 폭죽을 경찰을 향해 쏜다. 각도가 낮게 날라가는 폭죽을 옆에 있는 다른 시민이 다시 높게 각도를 잡는다. 광화문 근방에서 대치를 하기 전에 몇몇 에피소드를 보았다. 하나는 조선일보 신문기자로 보이는 이가 건물 위층에서 비밀리에 시민들 사진을 찍는 것을 시민이 보고 끌어내렸다. 그 와중에 실랑이가 있었다. 다른 하나는 시위군중들 사이에서 경찰을 잡아서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경찰은 공포에 질렸는지, 시민들에게 잘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었다.

밤 12시가 넘어서 몰아치는 폭우로 인해 많은 이들은 각기 해산한 것으로 보인다. 촛불집회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체력을 요구한다. 큰 동력을 비교적 상실한 듯 하지만, 청소년들의 그 생기발랄하고 거침없는 반이명박 구호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다. 전경들이 사용하는 구호를 시민들이 "빡세계" 하면서 더 크게 외치는 목소리와 모습은 재치만점이었다.

12 2008년 7월 26일 토요일

오늘 또한 청계천 앞과 시청의 공간들은 전경버스로 끊어버려서 시민들이 모일 수 없도록 이미 조치해 놓았다. 청계천에 모인 시민들은 종로 3가쪽으로 가서 다시 종각을 향해 행진을 하였다. 약 2천명 정도의 시민과 젊은이들이 모였다. 나는 늦게 있을 수가 없어서 약 9시 정도에 자리를 뺐지만 이후 뉴스에서는 여러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도되었다. 우선은 많은 이들이 급작스럽게 진행된 전경들의 시민해체작업으로 인해 연행되었다고 한다. 또한 자가용이 시민쪽을 향해 달려들어서 몇몇 시민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부시방한을 계기로 8월 정도가 되어 다시 큰 시위가 계획중이라고 한다. 27일 일요일에는 어떻게 촛불시위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13 2008년 8월 2일 토요일

8월 5일에는 미국 대통령 부시가 방한을 한다. 대통령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의미의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진행하였으나 저녁즈음 시작된 악천후로 인해 제대로 시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시청광장에서의 촛불집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열리

기가 어려웠었으며 게다가 청계광장의 집회 또한 경찰들이 전경차량으로 봉쇄하였기에 집회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결집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날은 무장을 단단하게 한 백골단이 노골적으로 투입된 날이기도 하였다. 특히 색소를 첨가한 휴대용 물총이 등장한 날이기도 하였다.

14 2008년 8월 5일 화요일 부시 방한일

이날은 부시가 한국을 찾는 날이다.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내린 날이며 약 2만 3천명의 병력을 서울 도심에 투입해서 촛불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준비를 하었다고 한다. 이날은 노골적으로 저녁 8시가 되면서부터 청계광장에 적극적으로 전경이 난입을 하여 시민들을 연행하였다. 이제 분사기는 전경들의 필요지참물이 되었으며 조금 지나서 색소가 든 살수차가 시민들에게 색소 물대포를 쏘아대었다. 극심한 진압으로 인해 시위는 정각 12시 정도가 되어서 일단은 해체가 되었고 이후 산발적으로 시민들은 밤샘집회를 하였다. 이후 언론의 통계에 의하면 이날 155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연행되었다고 한다. 이는 5월 31일 228명이 연행된 날 다음으로 많은 연행 숫자라고 한다. 특히 이날 시위에는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과 연행도 이루어졌다. 예수살기 상임의장인 문대골 목사가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갔으며 김경호 방인성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 10명이 강제 연행되었다.

15 2008년 9월 29일 월요일

촛불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다. 적어도 매주 거리를 수놓았던 촛불을 든 군중은 보이지 않는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더 이상 나의 시야와 우리 사회의 시선속에서 촛불집회는 주요한 테마가 되지는 않아 보인다. 약 두어달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정작 그것은 촛불을 든 이들과 그들을 성원하는 이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들게 한 정권과 정치집단에 의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 촛불을 들었던 이들에 대한 무차별한 연행과 법적구속을 넘어서서 아줌마부대에 대한 터치, 더 나아가서 촛불에 대한 여론적 관심과 시대사적 의미를 다루려는 언론의 펜대 마저도 고사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벌써 YTN과 KBS의 최고 수뇌는 교체가 되었으며 MBC도 위기에 직면한 듯 하다.

우리 신학 연구소도 촛불집회에 대한 심포지움을 진행하였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촛불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평가가 진행되어질 것이며, 그것은 나빠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내심 이러한 방식으로 촛불이 식었다는 자명한 사실 자체가 매우 슬프다. 아니 이러한 방식으로 촛불의 화두가 정치적 제도적 틀까지 적극적으로 기여되지 못하고 이렇게 꺼질 수 밖에 없었던 여러 정치내외적인 상황에 대한 절망감 같은 것을 느낀다. 광화문 도심을 몇 주동안 배회하면서 무엇인가를 외

쳤던 그 많은 요구와 목소리들은 허망한 신기루였을까. 운동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었을런지 몰라도, 그러한 시민적 요구를 제도적 변화에까지 연결시키지 않거나 오히려 억압하고 애써 무시했던 정권의 냉랭함에 비추어보면 나에게 촛불은 그저 날씨 좋은 날 잠시 멋진 소풍을 다녀왔었다는 까마득한 기억으로 이미 멀어지고 퇴색되었을 뿐이다. 촛불을 주시한 많은 지식인들이 2008년 여름 촛불의 그 의미와 한계를 더 냉정하고 솔직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많이 생산하기를 바란다.

16 2008년 11월 8일 토요일

11월 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관련 수배자 5명이 동해시 묵호의 한 호텔에서 검거 되었다. 검거된 수배자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박원석, 한용진 공동상황실장과 백성균 미친소닷컴 대표, 김동규 진보연대 정책국장, 권혜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등 5명이다. 함께 도주했던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장에 없었다고 한다. 지난 여름 경찰의 시선을 피해 광화문 촛불집회의 수많은 군중 앞에 당당하게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었던 기억이 난다. 6일 조선일보에는 이들은 호텔에 모여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는 조소 섞인 관점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오늘은 토요일이다. 몇 개월전만 해도 토요일만 되면 많은 이들의 마음은 촛불로 타올랐으며 시내는 그 열기가 온통 아스팔트와 밤하늘에 총총히 가득 찼었다. 그러나 지금은, 물론 내가 모르는 촛불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을런지는 모르나, 서울은 너무나도 조용하다. 어제 인간 광우병을 담은 MBC 스페셜이 방송되었다고 한다. 새로운 방식의 공안정국이 시민사회와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랑곳 하지 않고 언론의 소임을 다 하는 모습에 감사함을 갖는다. 시간이 되면 그 방송을 꼭 시청해야 할 것 같다. (계속).⁹⁾

9) 2008년 촛불문화제 리포트 Ver.1.0, in: 신학동네 (<http://theology.kr>)는 2008년 6월 10일 TeX로 작성하였음 ; 10일 백만인 촛불문화제 새벽에 일어난 일과 11일에 대하여 내용을 첨가하다(2008년 6월 11일) ; 6월 12일에 대하여 내용을 첨가하다(2008년 6월 12일) ; 7월 5일부터 3주간의 주말 촛불집회를 간략하게 기록하다(2008년 7월 21일) ; 7월 마지막주 토요일 촛불집회에 대해 간단하게 기록을 남기다(2008년 7월 28일) ; 8월 2일과 5일 촛불집회에 대해 기록을 남기다 (2008년 8월 16일) ; 9월 29일 촛불집회에 대한 단상을 남기다. (2008년 9월 29일) ; 11월 8일 오래간만에 촛불집회 주동자로 찍힌 수배자 검거소식과 MBC 광우병 관련 방송소식을 기록으로 남기다 (2008년 11월 8일)